

불자 세상보기



이도현  
한양대 국문과 교수

그간 한국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며 대중의 불심에 불을 지피는데 적지 않은 공을 세웠던 <불교평론>이 52호(2012년 가을호)를 끝으로 폐간할 위기에 있다. 가을호에 실린 윤창화 민족사 대표의 '경허의 주색과 삼수감산'이란 글이 문제의 발단이였다. 조선조 500년 동안 송유역불정착으로 인하여 맥이 끊겼던 선(禪)을 되살리려 근대 최고의 선지식이 바로 경허 선사다. 윤창화 대표는 이 글에서 경허선사의 '막행막식'을 다루었고 선사가 주색잡기를 참회하였다고 밝혔다. 수덕사를 대표로 덕승문중에서는 이를 경허선사에 대한 비난과 인신공격으로 간주하고 <불교평론>의 폐간을 요구하였고, 그동안 이 잡지를 후원해오던 만해실천선양회에서 이를 수용한 모양이다.

이런 양상을 보며 인연에 따라 나

불교평론 폐간은 퇴행이자 폭력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임을 새삼스럽게 깨닫기보다, 무엇인가 악연에 따라 일어나지 않을 일이 꼬리를 무는 듯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우선 수덕사의 대응은 오히려 경허 선사의 얼굴에 재를 뿌리는 꼴이다.

필자는 윤 대표의 글에서 '따스한 인간의 얼굴을 한 경허'를 보았는데, 그들은 '추한 과거승'의 모습을 본 모양이다. <삼국유사> '광덕과 엄장' 조에서 국문학자들이 더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는 윤공개 수행하여 단번에 부처가 된 광덕이 아니라 탐욕에 이끌렸지만 빼져린 참회를 하여 어렵게 부처가 된 엄장이다. 이와 유사한 실화는 경상도 땅에 술하게 널리 있는데, 대중들은 늘 엄장과 같은 이들을 더 위대하게 평가하였다.

성찰과 참회를 통하여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길이다. 수덕사 문중에서는 경허 선사(1849~1912)의 입적 100돌을 맞아 신격화하고 구하였고, 그동안 이 잡지를 후원해오던 만해실천선양회에서 이를 수용한 모양이다.

이런 양상을 보며 인연에 따라 나

어졌다. 선진국의 언론에서는 이런 경우 반론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대안을 삼는다. 윤대표의 글에 정녕 문제가 많았다면 같은 비중과 지면으로 반론을 쓰면 된다. 대중들은 두 글을 읽고 어느 것이 진리이고 허위인지 판별할 것이다. 허위를 통하여 진리를 새삼 반추하고, 진리를 통하여 그를 가슴 깊이 새기게 된다. 이제 <불교평론>은 발행인의 것도, 편집위원의 것도, 만해실천선양회의 것은 더더욱 아니다. 모든 독자의 것이다. 수덕사는 반론을 쓰는 대신 폐간을 요구하여 독자들이 이 잡지의 글을 읽고 마음을 정화하고 깨달을 기회를 박탈하였다.

이들은 현대 사회의 보편적인 원칙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중대한 범죄를 범하며 역사를 17세기 이전으로 퇴행시켰다. J.S Mill은 <자유론(On Liberty)>에서 "전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고 한 사람만이 그에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을 경우, 인류에게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킬 권리가 없다. 한 사람이 인류 전체를 침묵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인류를 침묵

시킬 권리가 없는 것과 같다. "의견의 표현을 침묵시키는 데 대한 피해는 그것이 인간의 권리를 탈취하며 그 의견의 당사자들보다도 그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권리마저 박탈한다는 데 있다."라고 하였다. John Milton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 사상의 공개시장을 천명하며 <아레오파기티카(Areopagitica)>를 펴낸 것이 1644년이다. 그 이후 인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였고, 이로써 중세의 암흑시대를 벗어나 현대로 이행하였다. 21세기 오는 수덕사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17세기 이전으로 돌리려는가.

교조는 어느 시대나 지성의 무덤이다. 비판이 없이 학문의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문종의 율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각 문종의 선지식은 주례사비평에 의해서만, 각 문종의 문도들에 의해서만 빛을 발하는 '우물 안 개구리'로 머물 것이다. 필자는 경허선사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평가가 자유롭게 행해져야 할 때를 바라면서 <불교평론>이 복간될 때까지 저항할 것이다. 진리와 자유는 지식인의 신앙이다.

社說

'불교평론' 이대로 폐간될 수 없다

착잡하다. 앞지러진 물의 공과를 누구에게 묻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사실 물을 수도 없다. 불교계 매체라는 코푸레를 썬 순간부터 한 번은 울 사태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그리고 아이없이 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황망할 따름이다.

<불교평론>은 척박한 한국불교학계에 논쟁이라는 싹을 틔운 지성의 장이었다. 매호의 기획특집은 기존 불교학이 가져올 수 없었던 색다른 주제와 접근을 선보였다. 생각이 했지만 누구도 시도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이런 <불교평론>의 특징은 학술과 지널리즘이라는 양면의 경계선을 마치 외줄을 타듯이 지켜온 결과이다. 주류 학계 학술지들도 못하던 일을 불교계의 학술 계간지가 해내 온 것이다.

하지만 <불교평론>은 폐간 된다. 발행자가 폐간을 결정했고, <불교평론>은 이를 받

아들었다. '경허스님 주색과 삼수감산'이라는 특별기고가 문제가 됐다고는 하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다행히 불교학계와 몇몇 스님, 재가자들이 중심으로 <불교평론>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현직 편집위원들도 이르면 10월 초 확대회의를 열고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범용 스님은 <불교평론>을 살리기 위해 200만 원을 공개 기탁하기도 했다.

많은 학자들은 주장한다. 건설적인 학술 논쟁은 불교학계의 논단을 풍성하게 한다고. 그런 의미에서 그 논단의 토대가 돼 온 <불교평론>이 폐간에서는 안돼는 존재가 됐다. '비운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다. 이번 사태가 한국불교학의 다양한 담론들이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군포교, 전역 후 관리 없으면 '도루묵'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다. 군중교구 자료에 의하면 내년의 수계인원이 12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군내 신자수는 줄고 있다. 군 불자 수는 2007년 11만 1000명을 기점으로 2008년 10만 4000명, 2011년 8만 9000명 등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이는 전체 군 장병 수가 줄어들고 있는 영향도 있지만 종교를 갖지 않는 장병들의 수가 늘고 있는 영향이 크다. 군내 무종교인 수는 50%에 달한다.

이 무종교인을 불교로 이끌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수계 인원이 일선사찰의 신도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역 이후 이들을 관리하는 사후 프로그램이 전무한 것도 큰 문제로 대두된다. 수계 이후 군장병들은 불자로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신도로서 활동하지 못한다. 이 전역 후 사후관리 부재는 군법사들 내부에서 10여년 전부터 논의되던 것이어서 심각성은 커진다.

이런 점에서 이웃종교인 천주교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시사한다. 천주교는

세례대장과 교적제도를 통해 세례 받은 교인들을 관리한다. 천주교의 경우 세례는 단 한번 밖에 받을 수 밖에 없어 세례 인원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다. 세례대장은 세례 받은 곳에서 관리하며 교적은 이사 가거나 이동시 해당 관할 성당으로 이관된다.

우리 불교계도 군장병들이 전역 후 지역 사찰과 청년회 등서 이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포교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수계 현황을 전산화 시켜 장병들이 주거하는 일선 사찰과 수계 정보를 연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다.

최근 포교 현장은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포교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전역 이후 일선 사찰서 범회에 참여하도록 온라인을 통해 유도하는 적극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할 때다.

또한 단순하게 군법사의 육성범회에 의존하기 보다는 트렌드에 맞게 힐링 및 마음 프로그램과 문화 활동 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지원하는 눈높이 범회가 돼야 한다.

사부대중 칼럼



이학종  
미디어투데이

작은 결혼식이 세간의 화제다. 한 유력 일간지가 '부모의 눈물로 울리는 결혼식'이라는 시리즈를 내보내면서 거창한 결혼식을 자제하자는 사회적 아젠다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이 글을 쓰는 것도 이런 아젠다가 계로까지 작동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경, 딸의 결혼식을 소박하게 치른 것이 입소문으로 알려졌고, 시대적 흐름을 잘 빠르게 간파한 현대불교신문에서 딸의 결혼식 이야기를 들려 달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식 한 달 전쯤, 딸과 예비 사위가 아주 작은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그때 아이들이 전한 이야기의 대강은 이런 것이었다.

"△잠못들 결혼문화의 사슬을 풀고 싶고 △고가의 드레스나 웨딩사진 등 호화스러운 결혼산업에 휘둘리고 싶지 않으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결혼식을 가족과 친한 친구들, 그리고 자신들을 잘 알고 아껴주는 분들과 덕담을 나

딸의 소박한 결혼식 이야기

누는 친밀한 자리로 만들고 싶고 △케면 때문에 억지로 식장까지 외야 하는 분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으며 △애매귀 부조(축의금) 문화를 거부하고 싶고 △성인으로 성장하는 기기에 도와주고 힘이 됐던 분들에게 자신들이 애정하는 자리로 만들고 싶다."

뚜렷한 소신과 정연한 논리로 작은 결혼식을 하겠다는 딸에 토를 달수 없었다. 망설이는 표정을 짓자 딸아이는 즉각 반기문 유엔총장 등 시대를 앞서가는 분들도 작은 결혼식을 했다며 압박(?)을 가했다.

"그렇게 하자. 너희가 옳다." 우리 부부는 '흔쾌하게' 작은 결혼식에 동의했다. 다만 하객을 양가 각 30명씩 60명 이내로 하자고 했을 때, 고민이 생겼다. 도저히 30명 이내로는 하객을 정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짧은 실랑이 끝에 "아빠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 10명을 더 할당하겠다"는 딸의 '배려'를 끝으로 작은 결혼식은 최종 결정됐다.

그래봐야 40명. 고심 끝에 직계가족 외에 친인척은 대표로 가장 연세가 높은 사촌형님 두 분으로 제한했다. 그러다보니, 몸담고 있는 불교계에는 결혼을 알릴 수 없었다. 자주 만나는 지인들 두

어 분에게만 알렸다. 굳이 식장에 올 필요는 없다는 말과 함께, 화환과 축의금은 사양했고, 날짜와 장소도 평일 오후 4시, 서울이 아닌 춘천의 한 리조트 식당으로 정했다. 참석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 부담을 덜어드리려는 나름의 생각에서였다.

그렇게 해서 소요된 비용이 총 1,500만원. 식사, 하객 선물, 신랑신부 옷(한복), 양가부모와 형제의 옷, 신혼여행, 리조트 객실과 아이들이 살 화천의 느낌 마을 주민들에게 대접한 국수공양 비용까지 일체가 포함된 액수다.

채식식당에서 하고 싶다는 아이들의 의견을 꺾지 않았다면 1,000만 원 선에서 가능했지만, 식장만큼은 아빠의 생각을 따르라고 하자 잠시 머뭇거리기 후 받아들였다. 폐백, 예단, 패물, 이바지 등은 양가의 합의로 모두 생략했다. 식후 시택으로 가서 인사를 하는 것으로 폐백을 대신하고, 패물은 시어머니가 물려주는 반지와 목걸이로 대체했다. 이불은 친정엄마가 시집을 때 가져왔던 목화솜 이불을 새롭게 틀어서 만들었고, 가구나 전자제품은 있는 것을 충분히 재활용하며, 그릇은 양가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로 해결했다.

주례도 두지 않았다. 신랑신부가 성장

하는 동안 가르침을 주었던 스님 3분, 목사님 2분, 신부님 1분, 은사 2분(신랑신부의 스승) 등 총 8분의 덕담으로 대신했다.

결혼식 내용도 독특했다. 미술과 연출을 전공한 아이들에게 짜임새 있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었다. 길놀이패의 여는 마당에 이어 한복을 갖추 입은 신랑신부가 입장하고, 스님의 축말에 이어 스승 여덟 분의 덕담, 작은 공연에 이어 신부 아빠의 성혼 순이었다. 그리고는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가 함께 테이블을 돌면서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으로 결혼식은 끝났다.

축의금 접수대도 없고, 화환 사절 팻말이 서 있는 식장 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낯설어하던 하객들의 표정은 식이 진행되면서 미소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며 야단을 쳤던 사촌형님들은 "그래, 잘 했다. 사실 이게 맞다"며 도리어 칭찬을 해주었다. 결혼할 생각이 없었던 신랑신부의 친구들도 "이런 결혼식이라면..." 하면서 부러워했다.

하객들에게 신랑신부의 이름을 새긴 '생태수건'과 화천 산 '들기름' 한 병씩을 나눠드리니 모두들 환한 웃음이다. 축의금도 받지 않고, 선물까지 나눠주는 결혼식이 신선한 경험이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해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회사용 연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영주지사	(054)634-3429
전북지사	(063)910-8977	부산지사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지구 환경을 해치는 종이컵 대신 이제부터 (범어가담긴 에코컵)을 사용하세요. 늘 곁에 두고 음미하고픈 대행스님의 범어!

**도자기 범어가담긴 에코컵**

series 1. 마음 series 2. 대장부

종류 구성 판매가  
A set 마음 + 대장부 9,000  
B set 마음 + 마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1. 마음 범어: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범어: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봐서 얻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트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요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데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책자 안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계의 상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탁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계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